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이사 25,6-10ㄱ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ㄷ-4.5.6(◎ 6ㄷㄹ)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제2독서] 필리 4,12-14.19-20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복음] 마태 22,1-14

[성가안내]

- 입당성가 [165] 주의 잔치
- 봉헌성가 [251] 무변 해상
- 성체성가 [497] 거룩하신 성사여
- 파견성가 [작별 Auld Lang Syne]
(가사)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어디 간들 잊으리오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 날 위해 축-배를 올리자

[10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이영우, 이태묘	이상홍 스테파노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박송남 프란치스코	홍 범 가족
황봉애	유정옥,성모회,성мина
이만재, 이광남 부부	이영애 레지나
남정희 아네스	이은경 헬렌
● 생미사	
양윤희 루시아 가족	이영애 레지나
김성인 미카엘 신부	이기수,고은경,장수림
고종호 마태오, 고윤제	이원경 모니카
이경자 올리안나 가족	김애희 테클라
전마지 마가렛	익명
부미숙	이정현 헬레나
이지연 안나레지나	이영애 레지나
이병국, 이지훈아네스, 이조앤그레이스	이영애 레지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예물봉헌	성가대 성찬봉사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0월 11일	이은경 헬렌	이경자 올리안나	박기웅 사도요한	이경자 올리안나	—	장혜윤 크리스티나	
10월 18일	이영노 올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조규진 아네스	민완준 필립보	—	민덕미 안젤라	

Q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청년 브레시디움인 <희망의 모후> 단원들을 만납니다. 요즘~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A 3월 코비드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은 나름 온전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집안에서만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것에 생각보다 적응도 잘되고 지루함 없이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7월쯤부터 생활의 무기력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던 미사도 한두 번 빠지게 되고 매일 아침 하던 묵주기도의 횡수도 줄어들더니 언제부터인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느낌도 들고, 레지오에 대한 소속감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9월쯤부터는 이렇게 혼자서만 하려니 의욕도 줄고 레지오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까지 갔었는데, 몇 년 전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냉담을 하다 어느 한순간 꿈처럼 다시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이 생각났습니다.

냉담하는 동안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 보살핌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항상 감사하며, 앞으로도 잠시 주춤하는 순간이 온다 해도 다시는 지난 시간처럼 냉담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되새기고 다시 시작하기까지도 시간이 조금은 걸렸지만 몇 주 전부터 같은 뜻을 가진 청년 레지오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레지오 마리에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고 미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회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단원들이 모여서 함께 바쳤던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되니 다시 레지오가 시작된 것 같고, 성모님의 기운을 다시 느끼는 중이며, 직접 모시는 성체가 지금의 상황이 오기 전에 모셨던 느낌보다 더 성스럽고, 감사합니다. - 정다경 마리아(희망의 모후 브레시디움 단장)



A 벌써 선선해진 10월이네요. 오 년 넘게 계셨던 본당 신부님의 귀국 소식도 들려오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름을 느낍니다.

본당 모든 활동이 정체된 요즘, 못 만나는 성당 친구들에 슬퍼하기보다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을 즐겁게 회상하려 해요.

매일 아침 일곱 시의 브레드라인 그룹들은 대부분 다른 주로 떠나고, 결혼도 하고, 최근엔 아기 소식도 들었습니다. 몸담고 있던 본당 재무팀은 몇 년 새 팀원이 다 교체되었지만, 요즘도 성당 가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제일 잘 나갔던 청년 전례부는 이제 눈에 띄게 인원이 줄어 속상하지만, 부원의 생일과 축일은 꼭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일요일 레지오팀인 사랑의 샘에 몸담으며 징검다리로 청년 성서공부를 해온 결과, 마지막 과정인 요한과 봉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목요일 레지오 팀에 행동 단원으로 넘어와서 선서도 하고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날까지 "We are all in this together!"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요. - 신혜정 소화데레사

[축하합니다]

10.4 조완준(바오로), 박정은(마리아) 부부가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함께 성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3 황봉애 (성모회 민정신 아폴로니아님의 모친, 민재인 데레사의 외조모)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전마사자(카타리나) 지군자(스테파니)
-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미사 전후 성당소독을 위해 미사 시간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2. 미사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11월1일부터 한인공동체 주일 미사는 9:15 am입니다.
 - 주일미사 :
 - 토요일 4:00 pm
 - 일요일 8:00 am, 9:30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 토 11:00 am
 3.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 1)손 세정
 - 2)마스크 착용 후 입장합니다.
 4. 주보는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5. 성당에는 신자간 거리를 유지하여 표시를 부착해 놓았으니 표시가 보이는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가족은 합석 가능).
 6. 혼인 및 장례미사가 총 25명 참석 가능합니다. 신부님께 문의바랍니다.
 7.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주일미사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실시간 온라인 미사 중계 :
 - 미국본당 홈페이지 <https://stfrancisnyc.org> 방문, "9:30 Korean Mass"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 ✳ 해당 사이트에 있는 "Donation" 클릭하여 본당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시간 동안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가 끝나기 전에 성당을 나오는 경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 한 줄로 서서 6피트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 성체만 손으로 받아 영합니다.
- 파견
 - 성가가 시작되면 질서 있게 퇴장합니다.

김성민 미카엘 신부님~
 신부님의 노고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늘 그러하셨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사제이시길 기원합니다,



(Before) 2016년 2월



(After) 2019년 3월



신부님을 위한 영적 예물 5:5:5
 개인당 묵주기도 5단
 미사 영성체(온라인 미사 포함) 개인당 5회
 사제를 위한 기도 5회

Farewell



후임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0.18 : 김 사무엘 신부(뉴튼 수도원)
 10.25~11.29 : 김기수 프란치스코 신부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일시 및 장소 : 오늘 미사 후 교육관1층

2021년 부활절 세례·견진 교리반 모집

10월 18일 마감합니다.

2020년은 일년일독 성경통독의 해입니다.

2021년 주보 광고 안내

◦ 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뒷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장기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광고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주일미사	오전 09:30 윗 성당 *(11월 첫 주부터 09:15)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50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 목 주 기도 성월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CLEAR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SE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레지오 회합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구세주의 모후pr	주일 08:00am	Conf. Rm(2F)
바다의 별pr	주일 08:00am	교육관 3
은총의 샘pr	수 03:00pm	Korean Conf. Rm(2F)
평화의 모후pr	수 07:30pm	Korean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화 07:00pm	Korean Conf. Rm(2F)
신비로운 장미pr	월 07:00pm	Korean Conf. Rm(2F)
사랑의 샘pr	주일 01:00pm	Conf. Rm(2F)
희망의 모후pr	목 07:00pm	Korean Conf. Rm(2F)